

하늘이 내린 큰 복

洪天
福賜

明慧期刊 제151기





▲ 미국(왼쪽)과 한국(오른쪽)의 일부 파룬궁수련생들이 단체 연공하는 모습.

목차 CONTENTS

권두일문	1	심신 건강의 길
독후감	2	서양인 독자, 창세주의 사랑을 느끼다
길성고조 (吉星高照)	4	두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5	더는 실명하지 않게 됐다!
	6	큰 손이 그를 물속에서 건져 올린다
절체절명에서 살아나	7	중증 우울증을 극복하고 예술대학에 합격
	10	위독했던 아버지,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나다
	12	기술 책임자, 삶의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롭게	14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파룬궁
	16	“매 순간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안을 얻는 길	19	우여곡절 끝에 얻은 정법, 대법 수련은 무료
아는 것이 복	22	공안 가족의 이민 거부, 누구에게 경종을 울리나
	25	증언: 진심으로 삼퇴해야 평안을 지킬 수 있다
향간여론	27	동료가 눈물로 들려준 토지개혁의 참혹한 기억
	29	“걸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심신 건강의 길

산토시(Santhosh)는 미국의 한 유명 기업에서 일하는 인도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그는 2014년 갑자기 면역계 질환을 앓게 됐지만,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해 강한 스테로이드제로 통증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수밖에 없었다. 2015년 여름, 한 동료의 권유로 그는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매일 공법을 연마하고 《전법륜(转法轮)》을 읽었더니 몇 달 뒤 건강을 회복했다. 이후 그의 아내와 딸, 어머니, 할머니, 이모까지 차례로 대법 수련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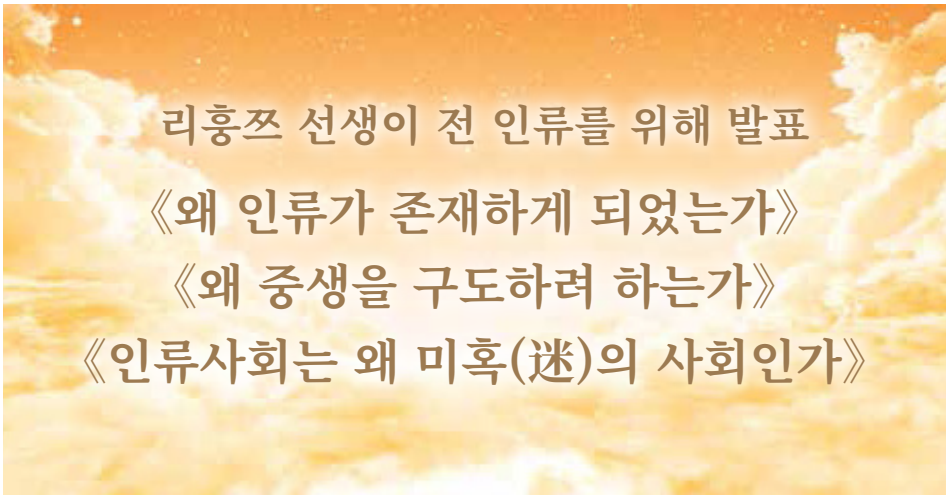
산토시와 같은 사례는 세계 각지의 파룬궁 수련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다. 왜 파룬궁 수련은 사람의 심신 건강을 이처럼 특별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일까? 중국의 저명한 의약학자 손사막은 “덕행이 부족하면 비록 옥액금단을 복용하더라도 오래 살 수 없고”, “도덕이 날로 온전해지면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오고, 장수를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수명이 늘어난다”고 했다. 이 말에서 도덕이 사람의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파룬궁 수련의 두드러진 특징은 덕을 중시하고 마음을 닦는 데 있다. 수련자

들은 진(真)·선(善)·인(忍)의 원칙에 따라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한다. 살생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으며, 남을 선하게 대하고, 질투와 원망, 색욕을 비롯한 각종 좋지 않은 마음과 욕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도덕 수준을 높여 간다. 또한 건강에 해로운 나쁜 습관에서 멀어져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도박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수련함으로써 온몸의 경락이 열리고 함께 순환해 인체의 면역력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몸을 정화하여 양생과 수명의 향상에 이르는 효과를 얻게 된다.

파룬궁은 1992년 5월 13일 리홍쯔(李洪志) 선생이 중국 장춘에서 전한 이래 오늘날까지 100여 개 나라에 널리 전해지며 여러 민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5월 13일은 리홍쯔 선생의 탄신일이자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기도 하다. 진선인의 빛이 우리의 마음밭을 밝혀 주고, 우리 모두가 심신이 건강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

‘하늘이 내린 큰 복’ 편집부



리홍쯔 선생이 전 인류를 위해 발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일련의 글을 발표하여 인류의 기원, 삼계(三界), 그리고 우주의 미혹(迷)을 밝혀냈으며 구구절절 천기를 담고 있다.

서양인 독자,
창세주의 사랑을 느끼다



글/ 스펡(施萍)

다국어판 에포크타임스 독자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종교·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 대사의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라는 글을 읽은 뒤, 많은 이들이 놀라움과 공감을 표현했다. 아래에 일부 독자들의 독후감을 발췌해 소개한다.

독자 댄 패디트는 에포크타임스가 리 대사의 글을 실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다음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창세주는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그가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생명은 모두 그가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독자는 “우리나라에서 파룬궁이



관심을 받고 자유롭게 수련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원칙적 토대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보호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닛 첼세스라는 한 독자는 “이 글은 깊이 숙고해 쓴 글이며, 많은 종교가 진실이라고 여기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창세주의 사랑은 많은 종교와 전통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입니다.”라고 썼다.

제이 즈모만이라는 독자는 “동양과 서양의 종교를 모두 인정하며 창세주의 큰 사랑을 보여 준 아름다운 글”이라고 썼다.

조너선 비든버그라는 독자는 “창세주는 자신이 창조한 존재들, 곧 자신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는 역사 전반에 걸쳐 사자들을 보내 가르침을 전하고 분명한 구원의 길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피조물을 사랑하고, 우리도 것처럼 사랑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라고 썼다.

기독교인 크리스티 시먼즈는 파룬궁에 자신의 신앙과 다른 점도 있지만, 그 믿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큰 관심을 갖고 이 글을 읽었으며, 창세주의 인류에

대한 사랑,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높은 도덕 기준 같은 공통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앨리스 윌슨이라는 독자는 “이 글은 창세주의 사랑이 보편적이며,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바란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고 썼다.

한 독자는 “모든 신앙에는 창세주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무의미한 차이로 더는 다투지 말고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 인류의 진정한 적은 믿음이 없는 영혼들, 마음이 비어 있으면서 모두가 자기들처럼 생각하기를 바라는 이들이다”라고 말했다.

기독교인 독자 캐시 톰슨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를 읽은 뒤 “리홍쯔 선생의 파룬궁 신앙에 대한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몸을 단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비와 인내, 사랑과 관용을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파룬궁이 창세주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느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리홍쯔 선생의 글과 이 글을 소개한 에포크타임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두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글/ 징야(清雅, 중국)

2022년 말, 코로나 봉쇄가 갑자기 해제되면서 각지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됐다.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있던 남편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12월 27일, 남편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곧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 응급치료를 받았다. 남편은 의식이 흐릿한 채 헛소리를 하고 팔다리를 마구 움직였으며, 진정 주사를 맞고도 통제가 되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주삿바늘을 뽑아 버렸다. 이를 연속으로 의사는 위독 통지서를 내렸다.

의사는 남편을 성의 큰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지만, 병원장인 사촌동생은 옮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의 대형 병원들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매일 사람이 죽어 나가는 데도 환자들은 길게 줄을 서 있지만 입원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전이된 중환자도 아직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라도 주치의가 있으

니,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라고 했다.

그때 나는 이미 10여 년째 파룬파를 수련하고 있었고, 대법의 비범함을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이 비교적 안정될 때면 MP3 이어폰을 그의 귀에 꽂아 주고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려주었다.

사흘 뒤 남편의 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했고, 열흘 뒤에는 침대에서 내려와 내가 부족하면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됐다.

나는 같은 병실의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진상을 알렸고, 그들은 대법의 신기함을 직접 목격한 뒤 모두 중공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14일 뒤 남편은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고, 다행히도 팬데믹 속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2023년 7월, 남편은 대학 동창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귀국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다시 쓰러져 국제병원으로 이송됐다.

일행은 예정대로 귀국했고, 남편은 국제병원에 홀로 남겨진 채 이틀 밤낮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결국 인공호흡기까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5쪽에서 계속)




더는 실명하지 않게 됐다!

명혜 토론토 기자단



무천(沐浴, 오른쪽 사진)은 대만에 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두통과 어지럼증이 자주 있었고, 눈앞 시야가 빛점에 가려 주변 사물을 온전히 볼 수 없어 정상적인 학업과 생활이 어려웠다. 의사의 검사 결과,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 몇 년 뒤에는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어머


(4쪽을 이어서) 딸은 곧바로 해외로 출발해 다음 날 밤늦게 국제병원에 도착했고, 즉시 아버지에게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려주었다.

사흘째 아침, 남편은 깨어났고 인공 호흡기 없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됐다. 딸은 의료진에게도 대법의 진상을 전했으며, 그들 역시 대법의 신기함을 직접 목격했다. 닷새째 되던 날, 남편은 퇴원했다. 대법과 사부님이 다시 한번 남편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이다. 

니는 무천을 데리고 곳곳을 다니며 치료법을 찾았고 민간요법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무천이 대학에 다니던 때, 오빠가 《전법륜(转法轮)》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느꼈다. 오빠의 권유로 무천도 《전법륜》을 읽게 됐고, 다행히 선원 공연도 관람하게 됐다. 그녀는 큰 감동을 받았고, 마음속으로 “나는 수련하겠다!”고 결심했다.

무천은 대학 근처의 파룬궁 연공장을 찾아가 두 달 동안 법공부와 연공을 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오랫동안 두통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고, 눈도 좋아졌다는 걸 깨달았어요.”라고 말했다.

2019년, 무천은 캐나다로 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 남편도 파룬따파를 수련하며, 가족은 화목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큰 손이 그를 물속에서 건져 올린다

글/ 중국 라오닝



2009년 여름 어느 날, 당시 40살이던 류차오(刘超)는 아내와 함께 후루다오시 룽완 해변욕장에 수영을 하러 갔다. 수영을 할 줄 몰랐던 그는 튜브도 빌리지 않은 채,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 물 위에 한가롭게 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닷물이 그리 깊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막상 물에 들어가 몇 걸음 떼자마자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류차오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겨우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친 뒤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누군가 곧바로 튜브를 던져 주었지만, 그는 그것을 잡지 못했다. 그가 ‘이제 끝이구나, 목숨을 잃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손 하나가 자신을 물 위로 떠받쳐 해안가까지 데려다 주는 느낌을 받았다.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

왔다. 류차오는 큰 소리로 “누가 저를 물 위로 들어 올려 주셨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류차오는 “혹시 신선이 구해 준 건 아

닐까? 그 손은 정말 크고 힘이 셨고 단 한 손으로 저를 들어 올렸으니까요”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놀라워했다.

그는 집에 돌아간 뒤 이 신기한 일을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던 어머니는 “분명 대법 사부님이 너를 구해 주신 거다. 네가 대법을 인정했고,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좋습니다’라고 새긴 장식품 20여 개를 동료들에게 나눠 주어 공덕을 쌓았으니, 사부님께서 돌봐 주시고 구해 주신 거야”라고 말했다.

류차오는 목숨을 구해 준 대법 사부님께 깊이 감사하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제가 천 위안을 널테니 불단을 하나 마련해서 리 대사의 법상을 모시고, 남는 돈은 대법 진상 자료를 만들어 사람을 구하는 데 쓰세요.”



중증 우울증을 극복하고 예술대학에 합격

글/ 춘화(春華, 라오닝)



내 조카딸은 단 3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도(1대1 수업이었지만 시간이 매우 짧았다) 학부 입학 점수를 넘어 국내의 한 유명 예술대학에 합격했다. 이는 모든 친척과 지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이전에 그녀는 중증 우울증을 앓아 거의 자폐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친지들은 제가 잘 가르친 덕분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파룬따파가 만들어 낸 기적이라고 말했다.

중증 우울증

조카딸은 열두 살 때 우울증에 걸렸다. 매주 심리상담을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고, 결국 학교도 그만두게 됐다. 아버지는 더 나은 상담사를 찾아, 일주

일에 한 번씩 한 시간 상담을 받게 했다. 한 번에 천 위안씩, 1년에 4만~5만 위안을 썼지만 2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었다.

조카딸은 거의 자폐 상태에 가까웠고 가족들과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온종일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2년 동안 아이를 돌보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아버지는 그 일로 조증 증세까지 생겼다. 외할머니도 그 때문에 정신 이상 증세를 겪게 됐다.

조카딸이 열네 살이 되었을 때, 나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말에 조금 반응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사진들도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놀랐다. 꽃



다운 나이의 어린 소녀가 저장해 둔 사진들이 거의 모두 잿빛과 푸른빛이었다. 나는 그 아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절망이 자리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밥을 해 주면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으면, 아이는 늘 “아무거나 괜찮아요”라고 답했다. 늘 그렇게 말하길래 이유를 묻자, 아이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미각까지 잃은 상태였다.

법 속에서 다시 살아나다

나는 조카딸과 함께 신탕련의 《소담풍운(笑談風雲)》을 봤는데, 아이는 무척 좋아했고 노트에 필기까지 가득 했다. 초등학교 때 아이에게 대법 사부님의 《홍음(洪吟)》을 함께 외운 적이 있어 《홍음》을 건네주었다. 아이는 책 속 그림을 따라 그렸고 연꽃 그림도 한 장 그렸는데 제법 잘 그렸고,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조카딸이 나와 함께 지낸 지 석 달 쯤 되던 어느 날 내가 대법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보고 있었다. 아이에게 “우리 같이 볼래?”라고 했더니 보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이가 방에서 혼자 조용히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 뒤로 나는 아이와 함께



법공부와 연공을 했다.

법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딸은 한 청소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 슈퍼에 가서 음료와 간식을 사다 드리며 “아주머니, 좀 드세요. 단것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라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잠시 놀라더니 무척 감동했다. 나 역시 뜻밖이었다. 그렇게 오래 우울증을 앓았는데도, 아이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섰다.

조카딸이 처음 나와 함께 파룬궁을 수련한 날, 다섯 번째 공법인 가부좌를 한 시간 동안 했는데, 통증을 참아가며 끝까지 버텼다. 다음 날 아침 동



공을 할 때는 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고개를 들 수 있고 자세도 곧은 것을 발견했다.

2년간의 우울증은 정신적인 고통만 아니었다. 약을 오래 먹으면서 몸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목뼈가 심하게 튀어나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늘 몸을 앞으로 숙인 모습이였다. 아이 목을 만져 보니, 원래 불룩하게 솟아 있던 부분이 사라졌다. 나는 너무 기뻐서 “목의 혹이 없어졌어. 사부님께서 네 뼈를 바로잡아 주신 거야”라고 말했다.

한 번은 조카딸이 거울 앞에 오래 서서 자신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사랑다운 모습이 참 예쁘네요”라고 말했다. 내가 웃으며 “그럼 예전엔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야?”라고 묻자, 아이는 “네”라고 답했다. 예전에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여서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나도 조카딸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희고 혈색이 돌며, 흐트러졌던 체형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법공부를 한 지 몇 달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아이 엄마는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다니며 “우리 딸이 이제 웃어요!”라고 말했다.

대학에 합격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딸은 밖에 나가 공부하고 싶어했다. 어릴 때 그림을 배운 적이 있어 다시 미술을 배우게 했다.

중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던 탓에 중등직업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졸업을 앞두고 예술 입시반에 참여했는데, 수업이 끝난 뒤에는 문화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겨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부모는 대학 진학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좋은 학교에 붙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적이 나온 뒤 모두 놀랐다. 조카딸이 뜻밖에도 입시 합격 점수선을 넘은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아이 아버지도 나를 예사롭게 보지 않게 됐고, 파룬파파가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것, 대법수련자들의 말이 사실임을 믿게 됐다. 그는 딸에게 조용히 물었다. “네 오빠가 대학에서 입당했니? 그럼 고모가 도와 탈당하도록 해.”

조카딸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온화하고 예의 바르게 바뀌었다. 가족들은 그 변화를 보고 모두 “이 아이는 정말 사람이 달라졌구나”라고 말했다.





위독했던 아버지,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나다

명혜 호주 기자단



▲ 안나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그의 온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내려주심을 깊이 감사했다. (명혜망)

안나는 참한 인상의 베트남계 여성으로, 회계학과 금융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호주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다.

안나의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병을 앓았다. 고통이 너무 심해 견디지 못해 자주 “이젠 더는 못 버티겠다!”라고 외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왔고, 이어 각종 합병증까지 겹치면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의사는 더 치료를 이어갈 수 없으며 언제든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나는 초자연적인 힘을 믿었기에 아버지에게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떤 고객이 전에 《전법륜(转法轮)》이라는 책을 한 권 줬다”고 말했다. 《전법륜》이라는 말을 듣자 안나는 친근함을 느꼈다. 그는 곧바로 “언제 받은 거예요?”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2년 전이야. 아, 그

들이 연꽃 하나도 줬지”라고 답했다. 그 책은 2년 동안 아버지의 책상 위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었고, 작은 연꽃도 2년 동안 걸려 있었다.

안나는 줄곧 삶의 의미를 생각해 왔지만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다. 그러다 《전법륜》이라는 책을 듣자 곧바로 인터넷에서 찾아본 뒤 바로 읽기 시작했다. 몇 쪽 읽지 않았는데도 안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답을 찾았다는 것을.


안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아빠, 이걸 꼭 배워야 해요! 답을 찾았어요. 이걸 정법이에요! 꼭 배워야 해요! 대법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그 고객을 찾아가 파룬궁 연공 동작을 배우라고 권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해라. 나는 배우고 싶지 않다.”



안나는 아버지에게 간청했다. “저를 위해 한 번만 해 주세요. 저는 아빠 딸이잖아요.” 그러자 아버지의 태도가 누그러졌고 고객의 집에 가서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배웠다. 그렇게 부녀는 모두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그때가 2023년 5월이었다.

수련이 깊어지면서 어느 날 아버지는 안나에게 “나는 다 나왔다”라고 했다. 안나가 “무슨 뜻이에요?”라고 되물자 아버지는 “몸이 마치 날아오르는 것 같고 통증이 전혀 없으며 온몸이 가볍고

편안하다”라고 했다. 그 뒤로 아버지는 모든 병고에서 벗어났다. 아버지는 또 예전에는 한 번도 무병의 가벼움을 느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건강한 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안나의 어머니도 남편이 파룬따파를 수련한 뒤 큰 변화를 직접 보고 수련에 들어섰다. 안나는 “사부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이끌어 본래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온 가족에게 새 삶을 내려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해답

파룬궁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가?


답: 파룬궁은 불가(佛家)의 수련법으로, 심성 수련을 중시합니다. 그 목적은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심성 수련과 연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다.

파룬궁은 질병과 업력(业力)을 어떻게 보나요?

답: 파룬궁에서는 업력(业力)이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심

성 제고와 연공을 통해 업력이 소멸되어 몸이 정화되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얇은 층차에서 볼 때 전통 한의학의 “정기(正气)가 충분하면 사(邪)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파룬궁은 약을 먹는 것을 금하나요?

답: 파룬궁의 모든 서적을 살펴봐도 “약을 먹지 말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약을 먹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많은 수련자가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몸이 건강해져 약이 필요 없게 되었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수련생도 있습니다. 



기술 책임자, 삶의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



명혜기자 황위성(黄宇生) 대만 보도

▲ 황웨이저(黄伟哲)는 은퇴 전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설계 대기업에서 관리직을 맡았다.

올해 예순인 황웨이저는 최근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설계 대기업의 관리직에서 은퇴했다. 오랫동안 첨단기술 산업에서 일해 온 그에게 “이성”과 “정확성”은 늘 몸에 밴 업무 언어였다. 그러나 겉으로 순탄해 보이는 전문적 성취 뒤에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버티기 힘들었던 인생의 깊은 침체기가 있었다. 그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기고 혼란에서 벗어났을까?

극심한 압박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다

2007년 그는 신주과학단지의 한 대형 반도체 회사에 관리자로 들어갔다. 관리직이었지만 팀은 없었고, 실무부터 관리 업무까지 모두 혼자 떠맡아야 했다. 사실상 네다섯 사람 몫의 일을 한 셈이었다. 장기간의 과로와 막중한 책임은 그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무너

뜨렸다. 황웨이저는 “그때는 매일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손도 계속 떨려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밤이 깊어 고요해질 때면 그는 저도 모르게 자문하곤 했다. “평생 열심히 살았고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인생이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된 걸까?”

대법 수련으로 되찾은 몸과 마음의 건강

2008년 황웨이저는 과학단지 내 다른 대형 기술 회사로 이직했다. 그곳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던 한 동료가 그에게 《전법륜(转法轮)》을 소개했고, 그의 마음은 즉시 크게 움직이며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이 동료의 안내로 웨이저는 파룬궁 9일 학습반에 참여해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의 9일 설법 영상을 체계적



으로 시청하고, 다섯 가지 공법 동작을 배웠다. 이후 그는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으며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는 수련 후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먼저 신체와 정신 상태에서 나타났다. 과거 막강한 업무의 압박 속에서 이미 몸에는 여러 경고 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수련 이후에는 몸과 마음이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수련을 시작한 지 십여 년 동안 거의 건강보험 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불평에서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쟁이 치열한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부서 간 이해 충돌이 흔한 일이다. 과거 웨이저 역시 앞단과 뒷단의 책임 소재 문제로 마음에 불만을 품은 적이 있었다. 그는 한때 “앞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뒤에서 누군가는 그걸 감당해야 하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라고 불평하곤 했다.

웨이저는 수련을 시작한 뒤 법리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 자신을 괴롭힌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질투심과 공을 다투는 마음, 그리고 득실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가 사실

하나의 정체라는 것을 깨닫자 일도 오히려 더 잘 추진됐다”라고 말했다.

한 번은 앞단 부서가 사양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설정해 뒷단에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적이 있었다. 수련 전의 그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거듭 강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변명하고 싶은 충동을 눌러 두고 생각했다. “상대 입장이라면 지금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일까?”

그는 먼저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상대가 뒷단의 제약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함께 절충점을 찾아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서둘러 가리려 하지 않고, 일을 더 잘 완수하는 데 집중했다.

웨이저는 “많은 경우 내가 먼저 상대의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내 일도 자연스럽게 풀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둘러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고 전체 목표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는 법을 배웠다. 이런 변화는 동료와 상사 모두에게 그의 진심을 느끼게 했고, 팀 협업도 한층 더 원활해졌다.

가족도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서다

수련이 웨이저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가정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그 변화가 단번에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한 번



은 그가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화를 냈었는데, 딸이 갑자기 “아빠, 수련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사부님께서 딸의 입을 빌려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았다”고 깨닫고는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닦기 시작했다.

법 공부가 깊어지면서 그는 점차 “반드시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헤아리는 법을 배웠다. 그는 “효율만 말한다고 해서 원만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선인아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 그는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다.

황웨이저의 변화는 아내가 가장 깊이 느꼈다. 이후 그의 아내도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기술 업계 종사자인 웨이저는 진정한 과학 정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검증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이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작은 마을에서 만난 파룬궁

명혜기자 더샹(德祥) 독일 보도

힐케는 독일 여성이다. 오래전 한 친한 친구가 그에게 파룬궁을 추천하며 공법도 가르쳐준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그 동작을 따라 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했다. 이후 요가와 여러 불가의 수행법을 시도해 본 뒤, 힐케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끌어 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다시 파룬궁이 떠올랐다.

그때는 2011년이였다. 당시 힐케는 프랑스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독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바이에른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힐케는 파룬따파 웹사이트에서 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작은 마을에 정말로 한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있었다. 힐케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 독일 파룬궁수련생 힐케 씨.

라고 느꼈다.

대법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다

힐케는 처음 《전법륜》을 읽었을 때 깊이 끌렸다. “그때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이것이라는 느낌이었죠. 마침내 내가 줄곧 찾아 헤매던 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련이 깊어지면서 힐케는 대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는 “대법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 수련하지 않았다면 “내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라며, 바로 그렇기에 마침내 자신이 돌아갈 곳을 찾았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힐케는 수련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

라보는 법도 배웠다. 그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는 맹목적으로 맞서거나,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 모든 상황에는 심성을 높일 기회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소원

신이 파룬궁 수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힐케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여는 흥법 및 진상 알리기 활동에 자주 참여했으며, 유럽 천국악단의 일원으로서 악단과 함께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며 대형 행사에도 참가하곤 했다. 그는 “내가 깨달은 아름다운 것을 모두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힐케는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처럼 거대한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다. 그 굳은 의지는 우리가 모두 매우 존경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점은 그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고, 여가를 내어 진상 알리기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매 순간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 ▲ ① 프랑스 낭트,
- ② 이탈리아 밀라노,
- ③ 영국 에든버러,
- ④ 한국 대구 선원 공연
매진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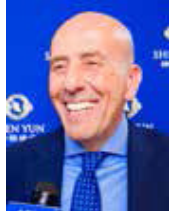
명혜기자 장원(章韻) 종합보도

선원예술단 8개 팀은 계속해서 세계 각지에서 순회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나라의 주류 관객들은 “선원 공연은 시적이면서도 활력이 넘치고, 매 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찬사를 보냈다. 2026년 공연 시즌 동안 선원은 프랑스 15개 도시에서 약 100회의 공연을 펼쳤다. 2025년 12월 중순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프랑스 10개 도시의 표가 매진돼 그 열기가 유례없이 뜨거웠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6만4천 장의 입장권이 일찌감치 모두 매진됐다. 한국 대구에서 열린 4회 공연도 모두 전석 매진됐고, 영국·독일·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 여러 도시의 공연 역시 흥행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이탈리아 상원의원 “저는 선원의 충실한 팬입니다”

세 번째로 선원을 관람한 이탈리아 국회 상원의원 세르조 라스트렐리(Sergio Rastrelli)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미 선원의 충실한 팬입니다. 이 공연은 화려하고 탁월하며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무대입니다. 중국의 오랜 문화를 비범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공산주의 이전의 중국, 공산주의가 없던 중국을 펼쳐 보입니다. 그것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문화적·정신적 유산입니다. 선원 예술가들은 대단한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춤과 음악을 통해 모든 자유와 전통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순간이며, 이탈리아와 유럽은 선원예술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스위스 소프라노 “공연의 매 순간이 은총입니다”

전문 소프라노 엘리 셰와 드레퓌스(Eli Schewa Dreyfus)는 스위스 로잔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한 뒤 이



렇게 찬사를 보냈다. “선원은 완벽함과 마음, 그리고 신성이 하나로 결합된 무대이며, 이 지구 위에 평화를 펼쳐 보이는 걸작입니다.”

그는 또 말했다. “창세주가 인간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는 장면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류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여전히 신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연의 매 순간은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원이 신의 은총을 세상에 보여 줄 용기를 지녔다는 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정말 매우, 매우 용감합니다.”

한국 미술학과 명예교수 “천상의 세계를 느꼈습니다”

“이 공연은 하늘의 꿈을 가슴에 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느끼고 그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한국 마산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석점덕은 대구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원 공연의 예술적 수준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무용수들의 뛰어난 기량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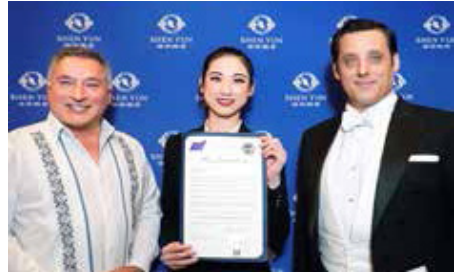
냈다. “누가 이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감히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공연을 봤지만 그것들은 선원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매우 훌륭하고도 큰 울림을 주는 공연”

미국 텍사스주 맥앨런시의 하비에르 비야로보스 시장은 직접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다며 “이 공연은 대단히 훌륭하고 깊은 충격을 주는 무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박해



▲ 미국 텍사스주 맥앨런시의 하비에르 비야로보스 시장(왼쪽)이 선원예술단 배우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2026년 2월 21일을 ‘선원예술의 날’로 선포했다. (NTD TV)

를 받는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고통과 억압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마지막에 나타난 기적 같은 변화는 정말 큰 울림을 주었다”고 말했다.



파룬궁 백여 개 나라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리홍쯔(李洪志) 선생께서 전하신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으로 우주 최고 특성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근본지도로 삼으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동작의 5가지 공법이 있다.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고 덕을 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는 점이다. 수

련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진선인의 원칙을 따르며 정직하고 선량하며 너그러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한다.

현재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 개국에 전파됐고 수련자 수는 1억이 넘는다. 인류의 심신 건강에 이바지한 뛰어난 공헌으로 리홍쯔 선생과 파룬따파는 여러 나라 정부로부터 총 1만 3000여 건이 넘는 포상, 지지 의안 등을 받았다.



▲ 파룬궁 창시자인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 각지에서 모두 56차례의 파룬궁 학습반을 열었다. 사진은 이 대사가 다롄에서 파룬궁 학습반을 개최하던 당시의 현장 모습이다.(명혜망)

우여곡절 끝에 얻은 정법, 대법 수련은 무료

글/ 추관(出凡, 중국)

1990년대 초, 나는 베이징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공부를 아주 성실히 한 편은 아니었지만 결석은 하지 않았고, 비교적 뛰어난 이해력과 기억력에 기대어 성적도 반에서 앞쪽에 드는 편이었다.

관절 통증에서 심장 부정맥까지

그때 나는 담배와 술에 깊이 빠져 있었다.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웠고, 주말이면 같은 고향 사람들과 술을 마

시며 식사하곤 했다.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관절 통증 발작이 갈수록 잦아졌고, 발작이 올 때마다 이부프로펜을 먹어 통증을 눌렀다. 나중에는 아스피린까지 복용해야 했다.

1992년 봄 어느 날, 나는 숙소 건물로 뛰어 올라갔다. 3층에 이르렀을 때 숨이 몹시 찼고, 방문 앞에서 문을 열려는 순간 심장이 한 번씩 멎는 듯한 증상이 나타났다. 그때 크고 둔탁한



◀파박해 이전에는 파룬궁 연공장이 중국의 도시와 농촌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 사진은 1998년 광저우의 한 파룬궁 연공장에서 단체로 아침 수련을 하는 모습이다.

충격음이 한 번 들린 뒤, 곧바로 모든 것이 고요해졌고 나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두 손에 식은 땀이 가득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학교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고, 비교적 심한 심방조기수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몇 가지 양약을 처방해 주면서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삼가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하던 1500m 달리기를 중단했고, 술 마시는 양도 줄였다.

나는 한편으로 양약을 복용하면서 학교 병원에서 침 치료도 받고, 태극권과 당시 유행하던 몇 가지 기공도 수련했다. 비록 양약을 복용한 이후 심장이 멎는 듯한 증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규칙하게 계속 발생하는 심방조기수축은 나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했다. 나는 결국 인

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내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젊은 나이에 이런 병에 걸렸는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 귀착점은 어디인가?

나는 불교 관련 서적을 읽고, 《도덕경》과 《성경》도 접하면서 잠시 마음의 평온을 얻었지만, 내가 절실히 알고 싶었던 인생의 답을 끝내 찾지는 못했다.

베이징에서 사부님의 설법을 듣다

인연이 닿아 1993년 2월, 나는 다행히도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이 베이징시에서 여신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할 수 있었다. 사부님은 매일 약 두 시간 동안 설법을 하신 뒤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동안 나는 옛글과 오늘의 책을 두루 뒤지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며 풀고자 했던 수많은 문



제, 곧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병이 드는가, 어떻게 해야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또 우주와 인생에 관한 많은 의문에 대해 사부님께서 설법 속에서 모두 답해 주셨다. 생명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듯한 기쁨이 온몸을 가득 채웠고, 마치 모든 세포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또 내가 과거에 따르던 인생의 원칙과 가치 기준이 이미 타락한 도덕 판단 체계 속에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것은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진선인의 기준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때부터 나는 대법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다.

파룬궁을 배운 뒤 담배와 술에 대한 중독이 사라졌고, 병으로 인해 생겼던 두려움과 불면,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없어졌다. 심장이 멎는 듯한 증상과 관절 통증 같은 몸의 문제도 자취 없이 사라졌다.

같은 반 친구들은 내 변화를 보고 모두 매우 놀라워했다. 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따뜻한 큰손에 건져 올려져 꽃이 만발하고 꼬꼬리와 제비가 지저귀는 세상으로 들어온 것만 같았다.

돌려받은 2천 위안

1993년 7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해 지역의 한 중요한 공공기관에 배치됐다. 나는 파룬궁에서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의 일부를 내어 파룬궁을 알리는 데 쓰고 싶었다.

1994년 5월, 나는 당시 파룬따파연구회의 책임자에게 편지를 써 내 뜻을 전했고, 동시에 우체국을 통해 2천 위안을 보냈다. 약 일주일 뒤 나는 연구회 책임자의 답장과 함께 되돌아온 2천 위안을 받았다. 편지에서 연구회 책임자는 대법은 돈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 주었고, 또 내게 마음을 더 닦고 공법도 더 많이 연마하라고 당부했다.

그해 12월 초, 나는 또 그 책임자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그달 하순 리홍쯔 사부님께서 광저우에 가서 설법하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 편지가 나로 하여금 광저우 제5기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할 수 있는 인연을 열어주었다. 나는 광저우에서 사부님의 중국 마지막 설법을 들었다.

나는 이 실제 경험을 글로 적어 리홍쯔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감사드리고자 한다.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알려 주고 싶다. 대법 수련은 돈을 받지 않는다.





공안 가족의 이민 거부, 누구에게 경종을 울리나

글/ 리칭(李清, 중국)

캐나다 연방법원이 2026년 3월 중순 내린 한 판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한 여성이 캐나다 이민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 이유는 그의 남편이 중국의 한 공안분국 부국장이기 때문이었다. 이 소식은 많은 대중, 특히 화교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다. 명혜망의 기록에 따르면, 그 여성의 남편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는 모두 파룬궁에 대한 심각한 박해에 가담한 바 있다.

이민이 거부된 과정과 이유

대기원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의 이름은 리리(Li Li, 음역)다. 2016년 8월 리리는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했고, 그의 남편과 자녀도 동반 가족으로 함께 신청했다. 이민 담당관은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리의 남편이 중국 공안 체계에서 여러 해 근무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캐나다 이민부는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리리에게 남편의 공안국 근무 경력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리리의 남편은 답신에서 자신이 허베이성 공안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으며, 스자좡시 차오둥 공안분국과 위화 공안분국에서 각각 형사대장과 부국장을 지냈다고 밝혔다. 그는 한때 120명에서 150명 규모의 인원을 관리하며 관할 구역 내 사건의 수사, 심문, 구금 업무를 맡았고, 현재 계급은 1급 경찰감이라고 했다. 리리의 남편은 자신이 용의자를 학대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 담당관은 그가 인권 침해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했다.

2024년 7월 10일, 캐나다 이민부는 리리에게 서한을 보내 그의 남편이 공안국에서 30년간 근무하는 동안 반인도 범죄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 서한은 여러 보고서를 인용하며, 고문과 인권 침해가 중국 전역



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허베이성 공안 시스템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리 남편의 직무와 책임 범위를 볼 때, 그는 동료와 부하들이 심문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 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 담당관은 리리의 남편을 특정한 고문 사건과 직접 연결하는 정보는 없지만, 중국의 형사사법 체계, 그 중에는 허베이성도 포함해 심문 과정에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존재해 왔음을 폭로한 출판물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리리의 남편은 최소한 이러한 행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2024년 9월, 이민 담당관은 리리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했다. 이유는 그의 남편이 입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었다.

리리는 이민 담당관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는 공안국에 조직적인 고문 정책이 존재한다는 이민 담당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즉, 허베이성 공안국이 심문과 구금 과정에서 고문을 시행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

거가 있다는 것이다. 리리와 그의 남편은 여러 해명을 내놓으며 애썼지만, 끝내 캐나다 이민 담당관과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결국 리리의 캐나다 이민 꿈은 좌절됐다.

관련 박해 사실과 사망 사건

리리가 캐나다 이민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둥 공안분국 형사대장과 위화 공안분국 부국장을 지낸 바 있다. 명혜망 자료를 보면, 허베이성은 파룬궁 박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스자좡시 차오둥 공안분국과 위화 공안분국 모두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대한 박해 범죄에 가담했고 사망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명혜망이 2014년 9월 22일 발표한 「스자좡시 위화 공안분국의 파룬궁 수련자 박해」라는 글에 따르면, 불완전한 통계만으로도 허베이성 스자좡시 위화구 정법위원회와 공안·검찰·법원이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한 사례는 7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명은 박해로 사망했고, 9명은 불법 판결을 받아 수감됐으며, 24명은 불법 노동 교양 처분을 받았고, 24명은 세뇌반에 끌려가 박해를 당했다. 또 25명은 납치되거나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으



며, 그보다 더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괴롭힘을 당했다.

글에 따르면, 2004년 2월 3일 스자좡시 위화 공안분국 경찰은 파룬궁 수련자 자오원위(趙文瑜)와 류리첸(劉立群)을 불법으로 체포했다. 자오씨와 류씨는 강제로 6층 발코니 창문에서 빗물 배수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 류리첸은 3층까지 내려오다가 추락해 요추가 부러졌고, 자오원위는 5층까지 내려오던 중 불행히도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20여 일이 지나서야 공안 당국은 가족에게 시신 확인을 통보했다.

위화 공안분국에서 파룬궁 박해를 전담하던 부국장 리쥘은 진상을 극력 은폐하며, 공안 경찰의 불법 수색과 포위가 자오원위의 추락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려 했다. 이 글은 위화 공안분국과 리쥘을 자오원위 사망을 초래한 직접 책임 기관과 책임자로 지목했다. 불법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파룬궁 수련자 류리첸은 이후 불법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리쥘은 이 사건의 직접 책임자로 지목됐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이후, 명혜망은 대량의 구체적인 박해 사례를 기록해 왔다. 이는 중

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박해받은 1차 자료를 명혜망에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평범한 수련자들의 생명과 피땀이 응축된 원자료와 이를 정리해 출판한 서적들, 예를 들어 《명혜 25주년 인권보고서》는 이미 자유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민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인권 탄압 가해자들을 제재하는 근거와 출처가 되고 있다.

공안분국 부국장의 아내가 캐나다 이민을 거부당한 사례를 보면, 국제 사회와 각국 정부의 이민 당국은 이미 중공이 파룬궁 박해에 저지른 중대한 인권 유린 범죄, 즉 고문죄와 반인도 범죄 등을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이 모르게 하려면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처럼, 어느 개인이든 어느 기관이든 어느 부서든 파룬궁 박해에 가담했다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실 이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한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사람들에게 파룬궁과 그 박해의 진상을 알리고, 중공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돕는 것은, 사람들이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휘말려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증언: 진심으로 삼퇴해야 평안을 지킬 수 있다

글/ 신란(欣然, 중국)

창위(强宇)의 아버지는 고급 엔지니어였고, 장 씨는 아버지가 말년에 맞이한 배우자였다. 창위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막 결혼했을 때 장 씨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해 주었고, 장 씨는 흔쾌히 ‘삼퇴’를 했다. 그러나 나중에 장 씨는 그때 자신이 진심으로 ‘삼퇴’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어린 시절 집안이 몹시 가난했다. 학교에 다닐 때 ‘홍소병’(지금의 소선대)에 가입했고, 중공의 세뇌 교육을 받았었다. 이후 장 씨는 노동자가 됐고 집안 형편도 나아지자 그것이 중공 덕분이라고 여기며 중공에 깊이 감사했다. 장 씨가 처음 ‘삼퇴’에 동의한 것도 아마 창위의 아버지가 고급 엔지니어로 자신보다 조건이 훨씬 좋았고, 결혼 생활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느껴 창위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몇 년 뒤 장 씨는 퇴직 수속을 마쳤고 돈도 많아지면서 자신감도 붙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그는 일부러 창위에게 진심으로 ‘삼퇴’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창위는 매우 놀랐다.

코로나 기간에 창위는 아버지와 장 씨에게 백신을 맞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씨는 “공짜인데 누가 안 맞아? 나는 꼭 맞을 거야”라고 했다. 두 번째 백신을 맞은 뒤 그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세 번째까지 맞았다.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장 씨는 갑자기 검은 피를 대량으로 토했다. 병원 진단은 위암 말기였다. 수술 뒤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세 차례 항암을 마친 후 체중이 65kg에서 35여 kg으로 줄어 거의 뼈만 앙상했다. 얼굴빛은 잿빛으로 검게 변했고,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더는 희망이 없다고 여기며 딸에게 못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딸은 슬픔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다.

장 씨는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다급하게 창위를 만나고 싶어 했다. 창위가 물었다. “아주머니,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 있어요. 홍소병에서 탈퇴하고 싶으세요?” 장 씨는 “나 이미 탈퇴한 거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창위가 답했다. “중간에 마음을 바꾸셨으니 그건 인정되지 않아요.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건, 아주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탈퇴하고 싶은지예요.” 그러자 장 씨는 다급



하게 말했다. “진심으로 탈퇴할게, 진심으로 탈퇴할게.” 창위는 그 순간 장 씨의 눈빛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창위는 다시 말했다. “아주머니, 저를 따라 두 번만 읽어보세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산런러호(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장 씨는 매우 진지하게 두 번 따라 읽었다. 창위가 말했다. “앞으로 계속 마음속으로 이 아홉 글자를 자주 외우세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장 씨는 “좋아, 좋아”라고 답했다. 그렇게 뜻을 밝히는 순간, 원래 잿빛 같던 장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혈색을 되찾았고,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끌려 나온 듯했다. 이 기적 같은 모습을 본 그의 딸과 사위는 감격해 창위의 손을 붙잡고 여러 차례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장 씨의 몸은 빠르게 좋아졌다. 창위가 돌아간 그날 밤, 줄곧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던 장 씨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는 식욕도 돌아와 남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했고, 사진까지 찍어 창위에게 보내왔다. 또 이틀이 지난 뒤 장 씨는 네 번째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고, 먼저 정기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놀라며 말했다. “항암을 세

번밖에 안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고요? 도대체 무슨 선단(仙丹)이라도 드신 겁니까?!”

그로부터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장 씨는 다시는 약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졌다. 지금 그녀의 체중은 이미 60kg대로 회복됐다.



평안을 위한 ‘삼퇴’ 방법

2026년 4월 10일 기준, 해외 탈당 사이트를 통해 ‘삼퇴’(탈당, 탈단, 탈대)를 선언한 인원은 이미 4억 6천만 명을 넘어섰다.

인터넷 차단을 우회해 ‘삼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https://santui.tuidang.org>), 진심으로 탈퇴한다면, 실명·가명·별명 모두 할 수 있다.



‘삼퇴’ 방법

- ① 돌과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탈당 사이트에 접속: santui.tuidang.org
- ② 해외 이메일로 전자우편을 보낸다: santui@tuidang.org
- ③ 북미 무료 서비스 전화로 전화: 1-702-873-1734
- ④ 현지 파룬공수련자에게 부탁해 ‘삼퇴’ 한다.
- ⑤ 먼저 자신의 ‘삼퇴’ 선언을 공공장소에 게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글로벌 탈당 사이트로 전달해야 한다.



동료가 눈물로 들려준 토지개혁의 참혹한 기억



글/ 샤오쥐안(小娟, 중국)

▲ ‘지주 타도’ 비판을 벌이는 투쟁대회 장면

장첸(张倩)은 내 동료인데, 늘 성실하고 맡은바 업무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나 유독 공산당에는 입당하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장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토지개혁 당시 가문이 겪은 참혹한 일을 들려주었다. 스무 명이 넘는 가족이 목숨을 잃었고, 온 가문이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그의 고향은 농촌이었고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조상들은 부지런히 일해 약간의 토지를 모았는데, 중공의 토지개혁 때 지주 성분으로 분류됐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어느 날, 그 집안의 남녀노소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지방 정부에 의해 끌려가 감금됐다. 그 가문에는 스무 살이 조금 넘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약간의 학식이 있어 당시 도시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밤새 급히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직장 인맥을 이용해 가족을 구해 보려 했지만,

결국 가족을 구하지도 못했고 되레 자신까지 함께 휘말리고 말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 집안사람들은 모두 산꼭대기로 끌려갔다. 그리고 한 사람씩 농촌에서 겨울철 운반 도구로 쓰던 썰매에 단단히 묶였다. 산 아래에는 얼어붙은 큰 강이 있었는데, 강물 위 얼음판에는 미리 사람 한 명이 빠질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하나씩 잔인하게 밀려 떨어졌고, 비탈을 따라 미끄러져 강 위로 내려간 뒤 결국 큰 얼음 구멍에 빠졌다. 맨 먼저 밀려 내려간 사람은 바로 성도에서 밤새 달려와 가족을 구하려 했던 그 젊은 여성이었다. 가족 가운데 살아 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장첸의 아버지는 당시 겨우 몇 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 세대의 유일한 핏줄이었다. 일이 터지기 전, 마침 깊은 산골에 살던 친척이 그를 데려가면서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하늘이 그 집안에 마지막 뿌리 하나를 남겨 준 셈이었다. 지금까지도 장첸의 아버지는 그 산골에서 살고 있다.

장첸은 이 뼈에 사무치는 지난 일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다. 나도 그제야 그가 왜 묵묵히 일만 할 뿐 공산당에는 입당하지 않는지 알게 됐다.

중공은 1949년 정권을 탈취한 이후 정치운동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토지개혁, 삼반오반, 문화대혁명에서 '6·4'에 이르기까지 8천만 명의 중국인이 비정상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장첸 가문의 비극은 수없이 박해받은 중국 가정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첸은 중공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보여주고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했을 때도 매우 공감했다. 내가 그와 '삼퇴'(중공의 당·단·대 조직 탈퇴)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즉시 큰 소리로 말했다. “탈퇴시켜 주세요, 반드시 탈퇴할게요! 우리 가족도 모두 탈퇴할 겁니다!”

어느 날 장첸은 나에게 30명에 가까운 '삼퇴' 명단을 건넸다. 그 가운데 몇명은 시댁 식구들이었다. 장첸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모두 탈퇴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마침내 이날을 기다려 왔구나!’”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국제 인권 규약을 위반할 뿐 아니라, 중공 스스로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된다. **첫째**, 중국 현행 헌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공안부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발표한 공문(공통자 [2000]39호, 공통자 [2005]39호)에서, 이들이 규정한 14종의 사교(邪教) 명단을 공표했는데, 그 안에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2011년 중국 국무원 신문출판총서가 내린 제50호 명령은 이미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금지령을 명확히 폐지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거나 파룬궁 서적을 소장하는 것은 모두 합법이다.

“걸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글/ 여군(如君)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섭씨 500도 이상 올라간다. 500도는 고사하고, 100도 끓는 물에 손을 넣는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공 중앙TV(CCTV)가 방송한 ‘텐안먼 분신자살’ 영상을 보면, 왕진둥(王进东)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말 그대로 “끄떡없이” 앉아 있다. 이걸 누가 믿을까?

어떤 시청자는 말했다. “요리하다 뜨거운 기름 한 방울만 팔에 튀어도 필적 뛰는데, 분신이 진짜라면, 왕진둥은 텐안먼 광장에서 벌써 필적필적 뛰고 난리였을 거다.” 걸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게다가, 왕진둥의 옷은 불에 타서 망가졌지만, 두 다리 사이에 있던 휘발유가 담긴 초록색 스프라이트 병은 새것



▲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섭씨 5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왕진둥은 “끄떡없이” 앉아 있다. 이걸 누가 믿을까?

처럼 멀쩡하고, 타기 쉬운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누군가 실험 해봤다.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에 불을 붙이면, 5초 만에 병이 말랑해지고, 7초엔 모양이 변하고, 10초면 그냥 쪼그라든 덩어리가 된다. 왕진둥 다리 사이의 병은 무슨 특수 소재라도 되는 건가?

‘분신자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했지만, 중앙TV 기자는 이 장면을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사건의 전개를 따라가며 촬영했다. 원경, 근경, 클로즈업까지 다 갖춘 고화질 영상, 이게 말이 되는가?

TV 전문가는 바로 한눈에 ‘연출된 장면’인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텐안먼은 최대의 영화 세트장이 됐다.”





▲ 회화: 《대법이 널리 전해지니 하늘과 땅이 함께 경축하다》, 작가: 밍쯔(明子, 중국)

이 작품은 온 세상이 함께 '세계 파룬따과의 날'(5월 13일)을 경축하는 성대한 장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화면 왼쪽 아래에는 2019년 약 5천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뉴욕에서 글자 맞추기 행사를 한 장면이 담겨 있다. 화면 가운데 아래에는 2010년 5천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타이베이에서 글자 맞추기를 한 모습이 표현돼 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해외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관을 이루는 퍼레이드 행렬이 그려져 있다.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받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이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 Edge, Chrome, 애플 Safari 등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